



시민공론화위원회_12차

✓ **보도일시**

2020. 10. 13.(화)

<배포 후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>

			
위원장		이 양 재 (☎ 010-5029-5455)	
간 사		이 정 현 (☎ 010-3689-4342)	
시민의숲1963추진단장		김 문 기 (☎ 063-281-5033)	
총 매 수		2매	
사	진	유 ☐ 무 ☒	영 상 유 ☐ 무 ☒

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, 시민이 밑그림 그린다...17일 첫 시나리오워크숍 개최!

-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정책도시관리, 도시계획, 지역경제, 시민 4개 그룹 32명 모두 참여
- 제1일차, 전반적인 교육 후 각 그룹별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 그리기 추진
- 마스크 착용, 소독제 비치 등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철저

-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시민·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낼 시나리오워크숍을 이번 주 토요일(17일)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(10월 24일, 11월 7일)마다 3주 연속 열린다.
-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(위원장 이양재, 이하 위원회)는 12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시나리오워크숍 세부프로그램을 확정하고, 참여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의제에 대한 세부 범위를 결정했다.
-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워크숍 제1일차에는 공론화의 이해를 위한 배경, 현황 등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각 그룹별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나갈 계획이다.
- 제1차 워크숍에서는 공론화의 핵심 요건인 공정성 확보 및 참여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토지소유자인 (주)자광으로부터 사업계획(안)을 참여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,
- 제2차 워크숍(10월 24일)에서는 참여자 의견이 반영된 미래상을 토대로 부지 공간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장단점에 대한 토의 과정을 거친 후

제3차 워크숍(11월 7일)에서 시나리오 재구조화를 통하여 최종 시나리오를 도출할 계획이다.

- 시민공론화를 위한 시나리오워크숍 등 숙의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용역 기관 (주)메트릭스 리서치에서는 숙련된 사회자, 모더레이터 등 진행요원 구성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, 금주 내 리허설을 마지막으로 워크숍 준비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.
- 이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도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1,500명의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중 120명의 시민참여단을 추출, 숙의 과정 및 재설문조사를 거치는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전주시민이 그려낸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미래상이 결정되고 나면 도출된 결정(안)을 전주시에 권고(안)으로서 제출하게 된다.
- 위원회는 시나리오워크숍 운영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엇보다 참여자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소독제 사용, 주기적인 방역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.
- 이양재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“전주시민을 대표하는 각계 참여자들로 구성된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해 본격적인 시민 의견 수렴에 착수하였으며, 이를 통하여 모두가 기다리던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하게 될 것”이며 이어 “전주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상이 그려질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는 전 과정에 있어,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성,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”임을 강조했다.